

M. Heidegger의 『Sein und Zeit』의 안과 밖

— 신학의 사변화로서의 철학

최 성 도 (국제실존철학연구소)

주제분류 존재론, 철학, 신학, 사변신학, 성서, 현상

주요어 존재, 신학, 성서, 사변신학, 사변화, 일상적 인간, 존재, 진리, 현상

요약문

하이데거는 가정과 그 주변에서는 물론 학창시절 내내 신학(성서)을 공부하였는데 그러한 유산을 훗날 사변화 한다. 그의 대표작품 “있음과 시간”(Sein und Zeit)은 그러한 학문적 결실이라고 하겠다. 신학에서 하느님의 존재의 규명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인 예수를 통해 바로 해명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과 믿지 않는 불신양인의 일상적 삶의 양식이 제시되는데, 하이데거도 존재자의 존재해명은 이 세상안에 있는 사람인 Dasein의 존재로 접근하고 다시 본래적이고 비본래적인 양상으로 구별하여 비본래적인 ‘세상사람’인 Das Man의 일상적 생활양식을 존재의 양상으로 분석한다. 이때 기독교의 타락론, 구원론, 종말론은 하느님의 계시적 행위만 탈색된 채 하이데거에게서 그대로 전용되어 나타난다. 존재를 규명하는 해석학적 방법인 “als Struktur”와 “vor Struktur”도 하이데거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에서 성서 해석(주경)의 원리로 삼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하이데거의 주요저서인 “있음과 시간”은 기독교신학의 유산을 내용<안쪽>으로 하여 생성된 철학작품<바깥쪽>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I. 이끄는 말

내가 M. Heidegger의 주요작품 “있음과 시간(Sein und Zeit, 다음부터 SuZ 로 씀)”을 읽었을 때, 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기독교적이고 흔히 말하는 실존(주의)철학계통의 작품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기독교적, 실존철학적”이라 함은 키엘케골 철학사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하이데거 철학연구 분야에서는 모두 “실존론적 기초존재론”이라는 지은이 하이데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실정이라서¹⁾ 나의 (비판적) 사고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도 당혹스러웠고 혼란스럽게도 하였다. 얼핏 저술의 관점과 내용은 겉으로는 그의 주장대로 기초존재론이라고 보아줄 수가 있겠으나 그 속을 파헤쳐 볼 수록 그 발상과 구조와 용어와 내용이 기독교신학을 기초로 해서 철학적으로 사변화한 것,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적 색채만을 떨쳐내고 이론적으로 세속화해서 분석 기술해낸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다.²⁾

- 1)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지은이의 저술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건강부회하여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은이 주장만 눈 딱 감고 따라가는 해석도 잘못이다. 훌륭한 독자는 지은이보다 작품을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은 해석학, 문학비평의 존립근거이다. 참고, Dilthey, GS. XIV 707쪽
- 2) 나는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SuZ을 불교(유식론)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해명했다고 자부하는 김형효의 “마음의 철학” 이란 책을 보았다. <책의 전체적인 비평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하고> 사변신학임을 논증하는 이 논문과 관련해서 몇가지 사실만 비판한다. i. 김형효는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해석은 달리하는데 Dasein(Da-sein)을 “마음”이라고 해석하고(Daseinanalyse를 “마음의 해명”으로 간주하고,) Befindlichkeit를 “마음 상태”라고 해석하는데(-책 140쪽 이하), 이는 의식철학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있음의 양태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앞의 단어는 “바로 여기 있음”-또는 다른 이들의 번역처럼 “현존재”, 뒤의 단어는 “상황에 있음”< 초기 강의에서는 Situation-Ich라고 했다>-또는 “처해 있음”으로 번역해야 옳다. 딜타이의 ‘체험-표현-이해’를 하이데거가 Befindlichkeit- Rede-Verstehen으로 바꾸어 놓은 것임을 추론해볼 때, ‘체험’에 더 가깝다(그때 그때 상황속에 구분짓어 있다는 뜻). ii. 하이데거는 ‘나’ 라는 “사람”의 존재 양식(형태)를 “바로 여기 있음”(Dasein)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일상에서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있는지, 그

그 후 독일에 유학을 가서 몇몇 하이데거 연구자들이 하이데거 철학이 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지적과 언급을 보았을 때, 내 생각과 추론이 옳았다는 확신에 이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SuZ이 “신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³⁾거나 또는 “위장된 신학”⁴⁾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SuZ와 신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이는 없다. 다만 대강 비슷한 느낌과 관점을 토로했거나 몇몇 비슷한 요소들만을 들추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⁵⁾.

이 논문은 1. SuZ가 내용에 있어서 신학(성경)⁶⁾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그것이 사변화한 신학임을 입증하며, 2. 이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신학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사변화(세속화, 탈신학화)하여 신학이 철학 사상에 폭넓게 기여할 수가 있나?,-이는 신학의 진리를

있음의 양식과 다른 사람 물건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있음의 태도와 서로의 있음의 관계양상, 이행을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그 실존 범주를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내는데, 김형효는 하이데거의 주장의 심오함을 감탄하면서 따르는 데도,반대로 존재적, 실존적인 해석만으로 (그것도 각각의 있음의 양상과 그 관계에서 보지를 않고) 주체적인 ”마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 존재론을 의식철학 내지는 인식론으로 돌려놓고 있다. Dasein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로서의 있음의 양식, 태도를 말한다. 그러기에 ”초월“이다. 이 초월은 ”수평적 방향운동“(-책 69쪽 이하)이 아니라 ”이미 (-김형효의 ‘마음’) 밖에 함께 있음“이다. 참고, 김형효,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계, 서울.2000

- 3) 이들의 이름만 들면 다음과 같다. A.Gehtmann Siefert, D.Caputo, T.Kisiel, L.Weber, E.juengel, M.Trowitsch, H.G.Gadamer, E.Przywara, W.Jens, Pero Brkic,. 보다 자세한 정보는, Choi,SeongDo ,Der Einfluss der theologischen Herkunft M.Heideggers auf sein philosophisches Denken,Uni.Halle,2002를 참조.
- 4) 이 말은 하이데거가 최초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던 (유대인) K. Loewith이 말하고 다닌다 하여 조금 배신감을 느끼고, 하이데거가 같은 유대인이요 아내 엘프리데의 소녀시절부터 친한 친구였던 엘리자베스 블로흐만 교수(당시 할레 사범대학교 교육학과)에게 쓴 편지에 옮긴 말이다. 참고 M.Heidegger, E.Blochmann, Briefwechsel 1918-1969,hrg. J.W. Storck. 226쪽 . 그러나 K. Loewith은 왜 “SuZ가 위장된 신학”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 5) K.Lehmann, in: Heidegger-Prospektiven zur Deutung seines Werkes. hrg. O.Poeggeler. Kifenhaur,Koeln 1969. 168쪽
- 6) 이 논문에서 신학적 유산이니 사변신학이니 할 때의 (기독교) “신학”이란 성서의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성서없이 기독교신학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비기독교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기독교의 선교활동의 근본적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3. 부수적으로“실존론적 기초존재론”이라고만 알고 있는 한국의 철학계에 올바른 인식의 마당을 넓혀주고자 하는데 목표가 정해졌다. 그에 따라서 작은 하나의 주제에 매달린(미시적인) 탐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신학의 주요 내용이 철학적으로 사변화가 되었는가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구하여 큰 줄기를(근간을) 밝혀나가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논문의 종이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핵심은 간결하나 다룰 문제점들은 명백하게 비교 입증될 것이다.)

II. 신학의 사변화와 철학

하이데거는 대학교에 다닐 때 교리학 교수 C. Braig와의 산책길에서 셸링과 헤겔의 철학이 사변신학이고 그들이 어떻게 신학을 사변화시켰는지에 관해 들었고, 훗날에는 그 스스로 ‘독일 관념론은 신학’⁷⁾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자신의 학문적 방법이나 연구의 형식에 관한 기본 틀을 함축적으로 시사해주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uZ을 엄밀히 고찰하면 서론과 세계와 세계성에 관한 해명을 하는 §1-§24 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①신 존재해명과 인간 삶의 현상에 대한 규정 ②그리고 구원의 도상에서의 신앙태도, 신학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타락론, 구원론, 종말론의 세속화와⁸⁾ ③성서해석학과 표현방법을 빌려 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7) H.Ott, *M. Heidegger* 60 쪽

8) 기독교 신앙생활을 최소한 2-3년만 한 사람이라면 창조-타락-구원-종말로 이어지는 성서의 기본내용(교리)을 누구나 조금은 이해하고 있다.

[1]신(神)존재 해명과 인간 존재 현상에 대한 규정과 해석의 사변화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존재론”이라는 사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전개되어 가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사상의 모태요 성장기의 요람인 신학공부의 배경과 과정을 나는 한 논문에서 속속들이 파헤쳤다⁹⁾. 이제 그 신학의 주요 내용(성서내용)¹⁰⁾으로 돌아가서 살펴봄으로써 하이데거의 SuZ 철학사상과 비교 검토하여 위에서 결론적으로 전제된 사항들을 확인해보자.

우주와 만물을 없음(無)에서 창조해낸(有) 하느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히브리어에서 ‘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음)”(I am who I am) (출3:14) 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 하느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부르지 못했다. 야훼 신은 사람이나 물건과 같은 존재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의 존재 자체였고 존재의 근거였기 때문이다.¹¹⁾ 죄악을 지어 타락한 사람은 거룩

- 9) 최성도, 『하이데거연구14집』, 한국하이데거학회, 2006.131-169쪽
- 10)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에 관한 참고서를 들면 다음과 같다. L.Berkhof, *Systematic Theology* 1-서론, 2-신론, 4-기독교론, 5-구원론, 6-교회론, 7-종말론, 고영민역, 기독교문사, 서울 1994-1996. P.Tillich, *systematische Theologie*[I,II] Ev.Verlagswerk, Stuttgart. 1958. 그밖에 성서개론,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이란 주제로 참고서를 찾으면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 11) 하이데거는 “현상학과 신학”이란 논문에서, 신학이 존재를 다루지 않고 존재자를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고, 예수의 “기독교성”(=메시아 설)을 실증(Positum,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보다는 화학이나 수학에 더 가까운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Ga.9* 49 쪽. 그러나 이는 하이데거가 신학을 “예수가 그리스도(구세주)”라는 선교활동의 일면을 신학 전체의 것으로 단순하게 확대해석하고 이해한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다. 신학(성서)의 주제는 철저히 하느님(神)을 다루는 학문이며, 그 <성부>하느님이 <성자> 예수로서 이 땅에 와서 구세주로 구속사역을 하신 것,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사역하는 역사를 야훼 하느님의 현현(현상)의 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비록 사람이 기도할 때 인격신으로서 한 대상을 앞에 두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하느님이 일반 사물처럼 하나의 존재자로 생각되어져서도 않된다. 하느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의 창조물이 그를 하나의 대상으로 여길 수가 없고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요 바탕이 될 뿐이다. 태평양 바다 속의 물방울 하나가 태평양 바다를 자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고 공기 한 숨이 전 우주 공기를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이치

한 하느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었고 오직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의해서만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존재자체를 보게 된다는 것은 곧 죄인인 사람의 죽음을 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자(구약성서시대), 야훼신은 마침내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할 자신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세상 안에 보내셨다. 야훼신의 존재를 바로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똑바로 알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하느님(존재)의 현현(현상)인 인간 예수를 통해 야훼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왜 예수가 이 세상에 왔는가? 야훼신이란 존재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는 신(神)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쯤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논의 과정으로 돌아가 보자. 하이데거는 존재(있음)를 탐구하고 규명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정의한다(36-38)¹²⁾. 이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인데, 어떤 존재자를 통해서 존재를 탐구할 것인가를 모색할 때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란 존재자의(에게 현현한) 존재를 통해서 존재일반의 이해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존재를 이해하는 ‘나’라는 ‘사람’의 ‘있음’이란 특징을 드러내는 바에 따라 “Dasein(바로(-시간적) 여기(-공간적) 있음)”으로 지칭하고, 이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의 존재의 특성내지 양식을 해명한다(7, 다음). 성서에서 야훼신의 존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안에- 있는 예수의 존재의 해명을 통해 접근해가듯이, 하이데거도 존재를 바로 알기위해서는 이- 세상(세계)-안에-있는 사람의 존재양식(Dasein)을 통해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존재설정과 그 해명방법은 동일한데 뒤의 그림표에서 확인할 것이다.

와 같다. 낱말의 대상은 거기에 자체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기독교 하느님(신)은 모두를 포괄하는 존재자요 각각의 존재자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를 포괄하는 존재자체이다. 인식론적으로 사람의 주관의 한 객체가 아니다. 참고."만일 하느님(神)이 한 존재자라면, 그는 유한성,공간,실체등의 범주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참고. P.Tillich, *Systematische Theologie*[1] Ev.Verlagswerk, Stuttgart. 1958, 273쪽 이하. 그렇다면 그는 (전지 전능한)신이 아니다.

12) 괄호안의 숫자는 “Sein und Zeit ”의 쪽수임

다음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이 세상사람들(존재자)은 어떻게 살아 가는가(존재하는가)? 이 -세상-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존재)의 양상, 방식, 태도, 관계들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하느님은 사람을 맨 처음 순결하게 창조해서 낙원에서 살게 했다. 그러나 신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 시조는 선악과라는 ‘물질에 유혹되어’ ‘죄’를 범했다. 그 죄의 별로서 ‘타락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도록’ 선고를 받고, 낙원에서 ‘이 세상안으로 내던져져서 떨어져나갔다’. 그리하여 창조때의 ‘본래성’을 잃고 ‘비본래적이 된’ 사람은 이 세상안에서 ‘일상적으로’ ‘남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속적인 관심’으로 ‘교제’를 하면서 ‘애매하게 이중적으로 뜬 소문을 퍼뜨리며 호기심을 갖고’ 어울려 살면서 ‘남이 잘되는 꼴은 못 봐주고’ 자신들과 ‘평균적인 보통의 사람’으로 머물러주기를 획책한다. 게다가 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염려하여’ ‘생산품(도구)’에 극도로 ‘정신이 팔려’ 있다. 죽음을 선고 받은 사람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몰라서 항상 ‘불안’속에서 살고 자연재해나 무서운 대상의 출현에 ‘공포’심을 갖고 전전긍긍한다. 이런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늘 ‘물질(= 돈)에 매여서 생각하는 것’이고 물질 획득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더욱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한다. 이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가 세상에 보내졌으나 악한 인간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다시 최후에 심판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재림은 두 가지 사건을 동반한다. 신앙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주지만 불신앙인에게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린다. 여기서 ‘시간의식의 두가지 양태’가 나오는데, 신앙인은 예수 재림사건이란 그 종말을 긴박하게 받아들이고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현재를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며 과거를 반성하여 회개하는 반복을 하지만’, 불신앙인은 ‘미래는 다만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고 현재는 늘 그대로 현재의 것으로 머무는 것으로 간주하며, 과거는 고통스러우니 빨리 잊자고’ 술이나 유흥으로 밤낮을 보

낸다. 하느님은 절대정신(영)으로서 스스로 목적하는 바를 따라 이 우주에 자기를 실현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역사이고 존재의 생기(또는 역운)'이며, 특히 구약성서(예언자들)의 역사관으로는, '거룩한 신'으로서 '하늘과 땅과 거기서 살아가는 필히 죽어야 할 자들'을 다스리는 섭리인 것이다.

성경은 절대 무오(無誤)하신 하느님이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하느님이 자기를 세상에 알리는(현시, 현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이 하느님을 '나타내 보이고 알림으로서 진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사람에게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참된 해방)를 주는 것이기에 '진리는 자유'라고 대신 말할 수 있다. 이 성서 '말씀(언어)은 신의 존재의 집(거처)'이며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은 이 '존재의 말 걸어움에 청중(묵상)하고', 귀 기울여야 하며 고요히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사람이 하느님의 창조물인 각각의 존재자의 존재를 아끼고 지키고 보살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생산품과 재화의 이용수단(기술)으로만 각각의 존재자를 소비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배반하는 것이기에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 항상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초월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인간의 윤리는 바로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서 성립한다.

이로써 나는 전 성서의 내용(신학의 핵심교리)을 간추려놓았다. 그런데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이나 성서와 같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생략하고, 따옴표를 주의하면서 읽으면, 이러한 성서 내용은 하이데거의 전-후기 전 사상을 요약해놓은 것임을 한 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보면 SuZ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 내용을 사변화(또는 세속화)시킨 것임이 드러난다.

이제 하이데거가 SuZ에서 목표를 두고 해명하는 존재론(Seinsanalyse)은 "일상적인 사람(Dasein)의 존재구조 또는 존재양식에 대한 분석"(Die

Analyse der Seinsstruktur des alltaeglichen Daseins)(43)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에서 세속적 인간의 일상적인 삶(있음)의 양상과 방식이나 태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분석하여 하이데거가 어떻게 신학을 사변철학화 하는지를 밝히는데 더 나아가보겠다.

[2] 타락론(Suendenfallslehre)에서 사변화 → Das Man in der Alltaeglichkeit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그 창조의 순수함(본래성)을 잃고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다른 타락한 사람과의 교제에서 다시 타락의 죄를 짓고, 세속적인 재물과 성공에의 욕구로 인해 타락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양식을 성서는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하이데거도 일상에서의 사람의 존재양식을 그대로 묘사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

1. 이—세계—안에—있음 (Das in—der—Welt—sein)

성서는 사람(인류의 시조)이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에 그 벌로서 낙원에서 쫓겨 나와서 이 세상(세계) 안으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리하여 근본적인 규정이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지칭이 된다. 보기:

그는 이 세상 안에 있었다(요1:10), 저들은 이 세상 안에 있고(요17:11)
이 세상 안에 있는 이(요한13:1), 이 세상 안에 있는 이(요일 2:15),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이(요일2:16), 이 세상에 있는 이(요일 4:4) 그밖에.
여기서 세상이란 죄악과 불의와 탐욕이 지배하는 불완전하고 한계상황과 조건들에 의해 규정된 세계를 일컫는다.

하이데거도 사람의 존재의 근본구조형태(Seinsgrundverfassung des Daseins)를 “이—세계—안에—있음(das in—der—Welt—sein)”(59) 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근본 규정을 해야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의 일상적인 존재양식의 다양한 비본래적인 양식을 (성서가 하는 것처럼)해명해 내어 기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한 후 그이는 세계와 세계성을

사변적(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는 것의 양식과 그 수행의 의미를 따져 물어간다.

2. 함께 있음(Mitsein)

성서는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여서 다른 사람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실을 선언한다(창2:18).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관계에 있고, 특히 신앙인은 선택이 되어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교회(Gemeinde)를 이루고, 그 구성원으로서(Mitglieder) 한 하느님(신)을 섬기는 형제자매임을 강조한다. 그 때문에 교회는 고아나 과부나 병자나 간혀있는 자에게 관심(Fuersorge)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대 강령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Miteinander) 사회적 관계에 있다는 근본 규정아래서 출발하는 윤리이며 사회규범이다. 더불어 산다함은 사람이 이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양식에 대한 또 다른 규정에 해당한다.

하이데거도 사람의 이 세상 안에서 산다는 기본 양식이나 태도에서 남과 “함께 있음(Mitsein, Miteinandersein)”(114-117)이란 타인의 존재양식을 사회적 관계에서 고찰하여 분석하는데, 이는 사람을 애초 홀로 있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창조한 성서의 지식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때 타인을 위한 관심으로서의 Fuer Sorge와 주위 사물의 이용을 위한 마음씀으로서의 Besorge는(121,다음)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애용의 형식제시이다.

3. 염려(die Sorge)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있음과 시간” 둘 사이에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염려라는 Sorge 이다. 그만큼 이 용어는 SuZ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개념을 하이데거가 독창적으로 착안한 것일까?

성서에서 예수는 그의 선교 시작부터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 욕구에 따라 먹고 입고 주거하는 것에 대해 염려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자임을 규정하고, 이에 매여서는 않된다고 가르쳤다(마 5:25-34, 눅12:22-32, 마 13:22, 눅8:11,10:41,27:34 그밖에). 이보다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정의를 찾아 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이 지녀야할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다. 바울 사도도 초기 교회들에게 늘 사람의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 나라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데 더 염려하라고 권면한다(고전 7:32-34, 빌 2:20, 벧전5:7 그밖에)

하이데거는 Dasein의 있음(Sein)이 Sorge(염려)라고 규정하는데(192), 그가 전통적 인간의 정의인 “이성이나 감정의 ” 동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보다 더 통합적이고 주관이나 의식보다 실제 사실적 삶에 관계하는 사람이란 존재자의 지향성이나 이행의 태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듯 한다. 하이데거 스스로 밝히듯이 (199 아래설명) 신약성서를 거론하면서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 Sorge에 대한 사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Sorge의 이해의 방향과 관련하여 ‘바로여기 있음’에서의 ‘있음’의 구조전체성을 “(세상안의 물질적인 것에) 마주해서 있는 것과 더불어 (세상) 안에 있음으로 이미 자기를 앞서있음(sich-Vorweg-schon Sein-in(der Welt) zu Sein-bei(innerweltlich begegnenden Seienden)이라고 분석한다(191). 이 염려로부터 사람은 사실상 미래를 도모하고 계획을 세우고 현재를 조달하면서 수행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며 다시 미래를 계획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Sorge의 의미를 ”시간성“이라고 규정하고 sich- Vorweg을 ‘미래’, schon Sein-in(der Welt)를 ‘과거’, zu Sein-bei(innerweltliche begegnendem Seienden)를 ‘현재’의 시간계기로 이해한다(191, 다음, 295). 이는 성서(신학)에서 영혼에 관한 장래의 염려는 도래하는 심판을 대비하여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직시하게 하는 시간의식의 변형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세상사람과 비본래성(Das Man und die Uneigentlichkeit)

성서는 이 세상에 속하여 물질적 탐욕에 빠져서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비본래적인 특성을 가진 세상 사람을 다음과 같이 일컫는다.

육신에 속한 사람(고전 2:14),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요3:6), 옛 사람(롬 6:6), 겉 사람(고후 4:16), 이 세상의 아들들(눅16:8), 종(롬 6:11), 세상에 속한자(1요4:15), 불순종의 아들들(엡2:2),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2:3), 이 악하고 거짓된 세대(마 12:37), 그밖에.

그리하여 이 비본래적인 사람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사람 (본래적인 사람)이 되라고 강권한다.

하이데거도 일상에서 세계안의 물질적인 것에 몰입하여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본래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양식을 “세상사람(Das Man)”으로 지칭한다(126, 다음). 이 세상 사람의 존재양식은 성서에서 묘사하는 위의 세상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따른다. 그 존재양식의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들을 성구에서 찾아내어 간략히 적시한다.

* 잡담: 불신앙인으로서의 세상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욕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뜬 소문을 듣고 퍼드리며 그런 것에 대한 잡담으로 소일한다. 참고 ,관련성구- 골 2:18, 4:6, 약1:19, 3:6,8, 딤후6:18,20, 딤후2:16, 4:2-4, 벵후2:18. 그밖에.

하이데거는 세상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태도(있음의 양식)는 잡담, 뜬 소문을 듣고 퍼뜨리고 잡담하는 데 소일한다고 기술한다.(167-170).

* 호기심: 성서는 이 호기심을 “본다”는 감각과 결부시킨다. 인간 시조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선악과를 눈으로 보고 먹음직스러워서 호기심이 발동하여 따서 먹고 죄를 지었다(창 3:5-7). 또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눈요기거리)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으로 산다고(요일2:16)나무란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끝이 없다(전 1:8).

하이데거는 이 호기심에 대해 성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여 설명한다. 본다는 감각을 통하여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Das Man의

일상적 존재양식이라고 사변적으로 설명한다(170-173).

* 애매성: 성서는 이 세상에서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큰 특징중의 하나가 선택과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는 하느님을 다른 한쪽으로는 우상을, 교회와 세상을, 천국과 지옥을, 영적생활과 육적인 생활을 겸하여 살아가는 애매성을 비난한다. 속히 결단을 하고 분명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한다. 키엘케골이 말했듯이 “이것도- 저것도”의 생활이 아니라 “이것이냐-저것이냐”의 결단을 요구한다.(참고. 약4:8, 왕상18:21, 골3:2, 계3:15, 눅24:25).

하이데거도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사람의 특징적 생활방식을 애매성에 두고, 이들은 실존적인 선택의 결단을 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한다고 지적한다(173-175).¹³⁾

5. 타락과 내던져있음(das Verfallen und die Geworfenheit)

SuZ의 § 38의 이 타락과 내던져있음에 관한 하이데거의 분석은 그 용어를 채택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 모두가 신학 성서의 타락 이론 그대로이다. 타락(Verfallen)-죄(Suende, 하이데거는 이 용어 대신에 Schuld를 사용한다)-죽음(Tod)의 과정 설명에서(175, 다음) 신학적인 분위기 또는 요소만을 애써 탈색시키고 있다.

성서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의 하느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추방된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 뿐이다. 이 죽음의 의식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늘 불안과 공포속에서 산다.(창 2:16,17, 3:1-19).하이데거도 성서 내용 그대로 설명하는데 의미는 거의 똑 같으나, 신학적 색채를 털어내고 다른 비슷한 용어로 대치한다¹⁴⁾.

13) 하이데거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의 그 외적 존재양식특징이라고 부른다면, 다음의 것들은 내적 특성의 양식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현격성(126)- 참고, 고전4:18, 엡4:18,19.5:3-7, *평균성(127) - 참고, 고전12:2, 살전5:11,1-15 *존재면책(128)-참고, 살후3:7-11, 딤후2:16, 3:6,7 *영합(128)- 참고, 딤후3:4,5, 벧전4:3

[3] 구원론(Heilslehre)에서 사변화→본래성의 가능성(die Möglichkeit zur Eigentlichkeit)

비본래적 인간 존재양식으로서의 Das Man이 본래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자각과 양심의 소리의 부름에 따를 것과 선구적 결단이 요청된다.

1. 죽음에 이르는 존재의 의식(das Bewusstsein zur Eigentlichkeit)

기독교 인간론에서 (특히 바울 신학)¹⁵⁾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죽음에 관해서는 기독교에서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① 개인의 육체의 죽음 ②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이하는 최후 심판 때 불신앙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죽음의 형벌을 받고 구원받은 이들은 영원한 참 생명에 이른다. 여기서 ①번의 개인적인 죽음도 최악에 대한 심판인한 ② 번에 포함이 된다.

14) 성서 원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의 기호와 취사선택에 따라 더 많은 같은 단어 또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몇몇 비슷한 단어 또는 설명만을 든다.

성서의 Abgefallen(히6:6, 롬11:12, 고전10:12, 행21:21)-하이데거의 Verfallen<그도 초기“실제사실의 해석학” 강의에서는 이 Abgefallen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176)>

성서의 Unterworfen(롬8:2-22)- 하이데거의 Geworfenheit(179).

성서의 유혹(Versuchung, 마6:13, 롬16:18, 갈5:26, 엡4:22- 하이데거의 유혹(Versuchung)(177)

성서의 소외(Entfremdung, 창3:7-1, 창4:13,14, 마26:25-27에서 유추할 수 있음-하이데거의 소외(178)

사로잡힘(sich Verfangen, 롬1:21-24, 5:12,21, 롬6:16,20)- 하이데거의 사로잡힘(178)

무 성(無性), 무(Nichtigkeit, 롬1:21 그밖에)- 하이데거의 ‘없음’(178, 284,285)

15) 신학자 E. Schlink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창립기념식(1953.11.21)의 총장 강연(Rekoratsrede)에서 SuZ 와 바울신학과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지적하였지만, 구체적인 연관에 관해서는 입증하지 않았다. 참고,“Weisheit und Torheit”, Rektoratsrede, Vandenhoeck und Ruprecht, Goettingen, 1954, 6 쪽

성서에 따르면 인류의 시조가 하느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그 형벌로 “정녕 죽으리라”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창2:17,3:3,4). 이에 따라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지적하고(히9:27),죄의 값은 사망이고(롬6:23),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롬8:13)고 누차 강조한다.

딜타이가 성서를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삶”이라고 한 바 있는데(249 아래설명), 하이데거도 그대로 성서를 따라 옮겨 놓는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사변화하는 목표대로 그리스도의 불시에 임의적으로 긴박하게 도래하는 “재림”을 빼고 그 자리에 “죽음”만을 놓고 이 도래하는 긴박한 종말(無)에의 불안속에서¹⁶⁾ 본래의 존재의식을 찾기를 모색한다(249 다음). 언제 우리 사람에게 닥쳐올지 모르나 반드시 정해진 운명인 이 죽음을 미리 기대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깨어 각성하여 자기 존재의의를 실현하는 본래성에 이를 수가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 깨닫지 못하면 비본래적인 양식으로 살아갈(존재할) 수밖에 없다.

16) 이 “불안”에 관해서 많은 하이데거 연구자들이 (참고, G.Figal, *M.Heidegger, Phaenomenologie der Freiheit Athenaeum, Fankfurt/M.*1988 192-209쪽, C.F. Gethmann, *Verstehen und Auslegung, Das Methodenproblem in der Philosophie M.Heideggers.*Bourrierr, Bonn.1974.192,193 쪽. 김형효,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계, 서울 191-219쪽. 이기상, 『존재와 현상』, 문예출판사, 서울.1992. 216-221쪽.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 출판사, 서울 2004. 223-225쪽) SuZ의 “불안”에 대해 다루는 SuZ의 40절에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이데거는 § 40 (또한 § 29절과 § 30절의 연관)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세상안에 있는 Dasein의 특성(in-der-Welt-Sein, 또는 Seinkoennen 186,187) 으로 막연히 말하고, “죽음”에 관해 논하는 § 50 에 가서야 비로소 불안이 왜 생기며 그 대상(Wovon, Worum)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힌다(250,251). 곧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의 불시적으로 함께 찾아오는 죽음 때문임을 밝힌다. 이 종말에로의 있음이 바로 없음(무無)의 현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이데거가 “있음”과 “없음(무)”을 다룰 때는 꼭 이 “죽음(끝)”을 염두에 둘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누구나 이 세상에서 죽어서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식은 이 세상 안에 사(있)는 동안 사람은 늘 불안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히 해답이 될 것이다.

2. 양심의 부름에 따름 (das Hoeren auf den Ruf des Gewissens)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르는 것은 사람의 본래성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 성서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그 양심에 어그러지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한다.(참조, 롬2:14,15, 롬9:1, 고후4:2,21:12, 딤후1:5,6, 4:2, 벰전3:16,21, 그밖에).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의 선악의 훈계의 소리가 들려오는 자리이고 그것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길때,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이데거도 이 양심의 소리라는 기독교적 윤리적 의미를 그대로 채용한다(특히§58 가책과 죄). 그렇지 않고 순전히 존재론적인 분석만을 지향했다면 이 양심이란 용어대신에 그는 “ 심정, 이성, 마음, 내면, 또는 의식”이란 용어를 사용했어야 할 것이다. 굳이 인간학이나 윤리적인 의미와 무관한 것이라면 “양심의 소리”나 “위에서 부름”(275-278)이라는 기독교적(윤리적)인 해석을 피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독교적 또는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명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부름”이란 용어에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양심”이란 단어를 넣어 부름을 해명한다.

3. 선구적 결단(die vorlaufende Entschlossenheit)

성서에는 선구적으로 그에 따라서 즉시 결단하여 행동하라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보기;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장차 올 심판에서 누가 너희를 피하게 하겠느냐?(마3:1-12,4:17, 막1:15)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깨어 기도하라(벰전4:7)

보라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고후6:2)

현재의 시간을 숙고하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롬 13:11,12)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불순종하던 때처럼 강박케 (=완강한 고집피우기) 하지 말라(히3:7).

부름을 받는 저 날에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강박하지 말라 (히3:13,15). 참고, 눅3:7-9, 계22:12,

이러한 성구는 하느님의 심판의 날(또는 죽음)이 임박했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그에 앞서 선구적으로 결단하고 회개하여 하느님께로 돌아오라는 긴박한 권유와 가르침이다.

하이데거는 거기서 예수의 '재림(최후의 심판)'이란 용어를 빼고 오직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만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여, 그 생각속에서 미리 맞이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하고(302) Dasein(사람)이 일상적 타락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고유의 본래적인 생활(존재) 양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론을 편다. 이 처럼 그 주제 설정과 주장과 해명 방식 모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다.

[4] 종말론(die Eschatologie)에서 사변화→die eigentliche Zeitlichkeit und die Wahrheit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든 비실제적으로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시간의식이 비신앙적으로(비본래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본래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구별된다. 신앙인에게 미래는 도둑같이 홀연히 다가오는 그리스도 재림의 때이며, 현재는 그에 맞서 준비해야하는 매우 급박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비 기독교인에게는 미래는 막연히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기대에서 맞아들이고, 현재는 그런 시간의 연속위에 있는 무시무종의 연속의 시간일 뿐이다. 그리고 진리는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현시하는) 말씀이고, 계시로서의 현상이다. 곧 신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나타냄이다. 예수가 진리인 것은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그를 통해 자기를 나타냄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자유라고도 하겠는데, 모든 구속에서 사람을 해방하고 방면하기 때문에 붙인 별칭이다. 하느님의 말씀이외에는 인간세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비로소 참된 진리가 실현된다고 한다.

하이데거도 사람(Dasein)의 시간의식을 본래적, 비본래적으로 둘로 구분하여(§ 65) 해명하고, 진리도 존재의 나타냄, 드러냄이며 자유이고 영원한 진리란 없다고 한다(329).

1.본래적 시간성과 비본래적 시간성(die eigentliche Zeitlichkeit und uneigentliche Zeitlichkeit)

바울 사도는 “때(kairos)와 시기(kronos)”를 구분하여 장차 언젠가는 닥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하였는데(살전5:2-6), 초기 교회는(그리고 오늘날에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매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가짐과 태도로 그에 준비하는 생활을 했(한)다. 이는 자세히 말하면 곧 개인, 각성된 현재의 마음으로 도래하는 재림을 맞을 준비로 염려를 하면서 앞서서 기대하고(Vorlaufen), 과거의 자신의 행위를 반복적으로(Wiederholung) 회상하면서 다시는 그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반성을 하면서 현재를 매 순간(Augenblick)처럼 긴장속에서 투철한 의식을 갖고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앙인은 시간의식에서 재림과 심판의 도래라는 미래의 시간의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چه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늘 계속되는 현재의 것(gegenwaertigen)이고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간직하며(Behalten) 특별한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기는 커녕 술취하고 방탕해서 주색잡기와 도박등 유흥에 빠져 오락으로 세월을 보낸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선악간에 심판할 주님도 없고 더구나 예수 재림을 믿지 않기에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잘못된 것도 쉬 잊어버리고(Vergessen) 제멋대로 욕구하는 대로 살아간다. 미래는 이들에게 막연히 수동적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gewaertigen). 이들의 시간의식은 시간이란 것이 영원히 알 수 없는 미래에서 흘러나와 영원의 과거로 흘러가는 어떤 것이란 막연한 의식 정도로 생각한다.

하이데거는 초기 종교현상학 강의에서 기독교의 시간의식과 어거스틴의 시간관을 언급했다. 사람(Dasein)은 미래의 것이나 다른 일에 늘 염려(Sorge)를 하는데, 바로 이 염려란 자기의 고유의 생각에서 밖으로 지향

하는 (자기-밖으로) 마음씀인 바 이것이 본래적으로 미래를 향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에 맞닥뜨려 선구적으로 다가가며, 현재의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머물 때 죽음에 대해 순간적으로 새로운 자세를 갖고 생활하게 되고, 과거의 행동이나 자세를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된다고 본다(kairos의 시간의식). 그러나 비본래적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태도의 시간의식은, 미래의 죽음은 오나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것처럼 기다려지는 것일 뿐이고 현재는 어제처럼 해뜨고 지듯이 온 것이고 과거는 까마득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단순히 기록으로 보존될 뿐이다(kronos의 시간의식). 이들의 시간이란 과학에서 배운 것 처럼 “물체의 운동 전후의 의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곧 미 래 --- 현 재 --- 과 거 라는 시간성의 세 계기(관점)가 본래적으로는 === 선 구.....순 간.....반 복 인데 반 해서, 비본래적으로는 = 기 대.....현 전 화.....망 각, 보 존 이 다. 이 세상사람(das Man)은 본래적인 시간의식을 갖게 되면 본래성을 회복할 가능성의 존재자이다.

2. 진리와 개시성(die Wahrheit und die Erschlossenheit)

하이데거는 전통적 진리 곧 판단과 대상의 일치인 본래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로부터 파생된 진리 곧 2차적 진리라고 비판하면서 바로여기있음(Dasein)의 개시성에 의해 근원적인 진리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44).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있는 사태를 그대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그 어원이나 본질에 맞다고 주장하는 바, 이런 점에서 보면 그의 진리론은 논리적 진위를 가리는 판단자료로서가 아니라가 다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특성을 지닌다(225,226).

이러한 진리론은 성서와 무관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독교에서 성서(신학)는 하느님의 계시(=나타내어 보여줌)를 그대로 드러내어 밝혀주는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하느님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어주신 분으로서 진리자체라고 가르친다(요 14:8). 특별 계시이든 자연 일반 계시이든 온전하신 하느님(존

재)이나 하느님의 말씀과 행위를 타락한 불완전한 사람에게 드러내어 주기에 진리(참된 이치)이며, 그것이 현상으로 제시되기에 존재의 현상으로서의 진리가 된다. 사람의 판단과 대상의 일치여부를 따져서 참과 거짓으로 논하는 사람의 진리의 가림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하느님의 존재이든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자이든 존재는 하느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밝혀지고 드러나며 현상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다.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진리론도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따라간다. 존재자의 존재(있음)를 드러내고 밝혀서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현상이 진리라고 할 때(325-329), 그 자신이 배운 신학의 유산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예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여(요 8:32) 진리의 자유성을 말한 것은 진리는 빛처럼(요1:9)자체 스스로 드러나 밝혀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어떠한 구속이나 압제나 외부적인 제약으로 굴절되고 가려질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하이데거도 진리가 자유라고 하여 무지로부터의 제약이나 방해가 되지 않고(비 은폐)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드러나서 알려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 진리가 영원하지 않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일시적이라고 하는(229) 주장도 기독교에서 오직 하느님의 말씀이외에 지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역사의 완성때에야 비로소 참된 진리가 이 땅에 실현된다고(고전13:9-12) 하는 성구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사변화로서의 표현의 양식과 방법

하이데거가 해석학 방식으로 밝혀낸 “- als(로서) 구조와 vor(앞선-)구조”는 그의 독창적인 연구의 결과일까? 나로서는 이 또한 하이데거가 신학계에서 익히 알고 사용하는 성서 해석의 원리를 천재적으로 이론화를 해서 해석의 전형을 방식화해냈다고 생각되어진다.

1. 해석학적 방법의 전용

하이데거는 철학이란 보편적 현상학적 존재론인데 Dasein의 해석학에서 출발하여 Existenz의 분석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모든 철학적 물음들이 이에 근거하고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Dasein이 이- 세상-안-에서 있다고 할 때 여기에는 세계와 관계한다, 세계를 본다는 뜻이 이미 내포된다. 이 경우 세계는 "...을 ---로서(-als Struktur)" 보고 이해한다는 구조가 성립한다(148, 다음). als 뒤의 것은 앞의 것보다 이미 앞서 이해되어 있고 보다 쉬운 단순한 개념성을 갖는다. 이 앞서 이해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모든 이해에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에 앞서 이미 이해되어있는 것, 곧 앞선(先 또는 前) 이라는 구조가 나온다. 이 앞선(先) 이해되어있는 것으로부터의 새로운 것의 이해라는 것을 형식화하면 이해의 선- 구조(vor-Struktur)가 나온다(156,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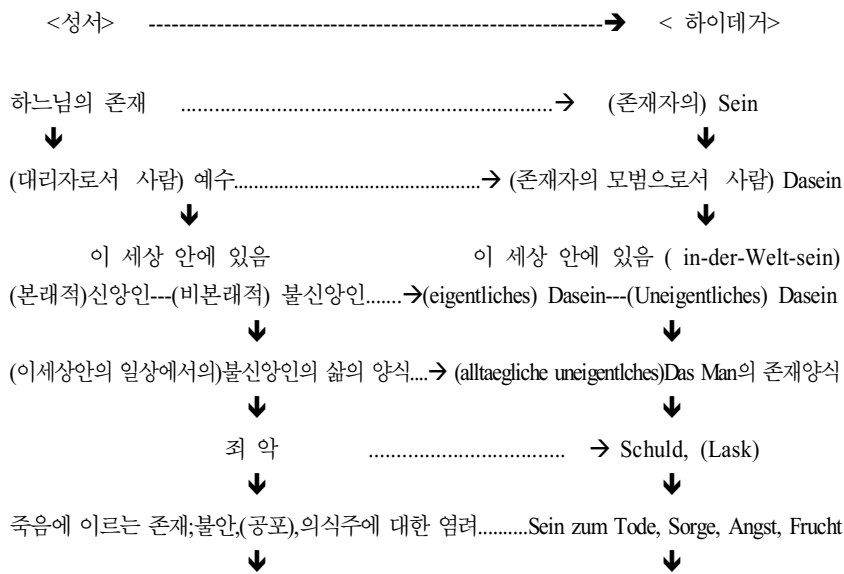
나는 이 이해의 "--로서 구조(-als Struktur)"나 "앞선- 구조(vor-Struktur)" 도 신학지식의 통찰에서 그대로 채택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성서는 하느님을 또는 신과 관련한 것을 항상 "--(a)을 ...(b) 으로서" <a als b >가르치고 설교해서 이해시켜 왔다. 보기: 하느님을 창조주로서,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예수를 메시아로서, 어린 양 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사람을 불순종한 자로서, 죄로 죽어야할 자로서, 그리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자주 비유로서 알렸다. 하늘 나라를 옥토의 씨앗으로서, 땅에 묻힌 보화로서,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또 신학에서 신약의 말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앞서 구약 성서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사람의 이전(vor-)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지적하고 이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한다. 보기: 전에 죄의 종이었던 이들-현재는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 이들, 전에 죄 없는 낙원에 있던 생활, 현재 죄 많은 이세상안에서의 생활, 전에는 모세의 율법아래 매여 있던 이들- 현재는 예수의 복음의 은총의 빛 아래 있는 이들..... 여기서 현재의 것을 옳게

이해하고 알려면 앞서의 것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현재와 미래(이후)는 이전(과거)의 빛을 통해서야 바로 드러난다는 역경(주석)원칙과 설교방법이 제시된다. 성서를 해석해서 설교하여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로서(als)구조”와 ”앞선(vor)-구조”를 숙지하는 것이 주경신학의 기본과제였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듯이, 하이데거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신부의 미사에 봉사하면서 성당에서 성서의 주요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배웠고 자라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론을 정식화 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해석학의 구조적 관심사를 이론적으로 형식화하여 해석의 방법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하이데거의 큰 업적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논술한 바 사변화 과정을 한 눈에 들어오도록 다음의 그림표에서 비교한다.



M. Heidegger의 『Sein und Zeit』의 안과 밖 / 최성도

타락, 세상의 자랑, 안목(도구사용)의 정욕, 재물에 몰입한 (사고)기획,..... Fallen, geworfener Entwurf
 애매성, 호기심, 뜬소문에 집착, 평균적인 보통사람Zweiduetigkeit, Nuegier, Gerede

<복음의 빛(계시의 은총의 빛) 아래서> < Dasein의 존재구조 >
 ↓ ↓

사람이 죄악 아래있다는 사실이 깨우쳐짐(열려짐, 개시)→ Erschlossenheit
 타락 상태, 욕정속 생각, 물욕에 사로잡혀있음(던져져있음)자각..... Verfallen, Entwurf, Geworfenheit

< 계시(말씀)아래 드러나는 자기인식 ><Erschlossenheit의 구성>



죄와 물욕에 젖은 생각과 기분과 그 이런 이해와 상스런 말씨..... Befindlichkeit, Rede, Verstehen



양심의 부름, 선구적 결단.....→ Ruf des Gewissens, Entschlossen



진리(=하느님 계시-현시, 현상, 나타남, 말씀)-자유.....진리(은폐가 이념, 나타남, 현상, 존재의 현시)-자유

말씀(성서)-하느님<존재의>의 임재, 거처, 나타남.....언어-존재의 집, 존재가 드러나는 거처, 나타남

성서 해석학 : a 로서 b를, als Struktur→ 해석학 als Struktur,

.....에 앞서를, Vor struktur→ Vor Struktur

사람(교회)-하느님 창조물을 유지 간수하는 보호자, 하느님나라 파수꾼.....사람- 존재의 목자, 파수꾼



역사;<1. 구약성서의 역사관>

하느님(거룩한 신)과 하늘과 땅과 그안 사멸할자들의 사건.....거룩한신, 하늘, 땅, 사멸할 자들의
 얘기(-4방위)

역사-절대정신인 신존재의 자기 뜻(섭리)의 나타냄, 실현과정.....존재의 생기, 역운



시간관;<2. 신약성서의 시간, 역사관 >

시간: 예수 재림의 종말론(parusia)의 도래-영생과 죽음의 도래.....사람의 죽음의 도래

신앙인의 시간관-미래(재림의 선구), 현재(순간화), 과거(반복회상).....→ Dasein의 본래적인 시간관

불신앙인의 시간관-미래(기다림), 현재(현존화), 과거(망각, 유지).....→ 비본래적인 Das Man의 시간관

구도; 하느님의 존재와 계시말씀의 묵상과 청중존재의 말걸어옴의 청중, 명상 (Entlassung)

들이 거의 일치하는 위의 그림표를 앞에 두고 보면, 이 논문에서 처음에 제기된 전제는 다 입증되고 해명되어졌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음과 시간"(SuZ)이 하이데거가 기독교 신학의 내용을 사변화한 사변신학이라고 말했다. 굳이 사변신학이란 무슨 뜻인가를 여기서 다시 밝히는 것이 다음의 절의 해명에 보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사변(spekulative, 思辨)이란 철학에서 실천이나 경험을 떠난 순수한 이론만을 다루는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이면, '사변신학'이란 신학의 사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신학에서 하느님의 계시의 내용을 탐색하거나 무시하고 인간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순전히 이론적으로 재해석하고 분석해내는 것을 일컫는다. 달리 '사변 철학화'한 것이라고 말하면 실천과 경험이 도외시되어 공허한 이론이란 뜻을 함께 안고 있으나, 신학을 '세속화' 했다고 하면 계시를 보류하고 당대의 문화의 언어로 재해석 했다는 뜻이 들어있다. 여기서 나는 위 두 가지(사변신학과 세속화) 뜻을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탈(脫) 신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형식적인 탈신학화와 존재론화

하이데거는 앞에서 내가 증명한 것처럼 철저히 성서지식으로부터 자신의 철학을 도출해냈는데도, SuZ은 인간학도 아니고 실존철학도 아니고 윤리학과도 전혀 관계없는 실존론적 기초존재론"이라고만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여기서 간단히 언급한다.

1. 존재자의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존재적”>, 존재자의 있음(존재)을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존재론적”> 강조한다. 하이데거가 ‘개념분석’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있음의 양상과 형식을 그대로 제시하고 이를 마치 분석철학에서의 ”메타이론“처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에 존재(현상)론이라고 주장한

다. 이 경우 신학의 계시 현상을 통한 신이란 존재(자)가 철저히 배제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모든 요소들이 탈색되고 순전히 철학의 개념자체만으로 용어가 바뀌거나 이론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배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새로운 존재론으로 미혹되며, 신학을 공부한 이들 가운데서도 투철한 통찰과 깊은 반성적 안목이 없으면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2. 사람의 “실존” 상태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명하는 것<“-실존적”>이 아니고, 그러한 실존 상태와 양식의 범주(= 실존 범주)를 먼저 제시하고 그 실존의 범주를 분석하는 것<“-실존론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서 실존주의에 속한 것도 아니고 실존철학이 아니라고 한다.
3. 이러한 개념분석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히 그는 **접두어 Vor-(先, 前)을 붙여** 자신의 철학적 개념사용과 구별을 하고자 한다. 보기: Vorwissenschaft, Vorphilosophie, Vorontologie, Vorverstehen, Vorbegriff, Vorphaenomenologie, 그밖에.
4. **접미어 -keit, -heit, -taet를 붙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단어의 동사적 실제 의미보다는 그 추상 명사적 개념의 뜻을 드러내어 분석적인 용법에 맞추고자 한다.
보기: Eigentlichkeit, Alltaeglichkeit, Weltlichkeit, Zeughaftigkeit, Verwandbarkeit, Ganzheit, Verborgenheit, Verfallenheit, Existenzialitaet, Temporalitaet, 그밖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이데거는 성서의 주요내용들을 모두 탈 신학화해서 존재론으로 탈바꿈시켜놓는다¹⁷⁾. 얼핏 타당한 존재의 이론으로 보

17) 하이데거는 “직관과 표현의 현상학 강의”가 끝난 후 1920.9.13. K. Loewith에게 한 편지에서. “후썰이 자신을 철학자가 아니라 종교철학자 <-유럽에서 보통 ”종교“ 라고 할 때 흔히 기독교를 일반화시켜서 일컬었다.>와 신학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고, 강의 참가 학생들의 신학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키엘케골과 데카

여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 개념 분석 방법에는 큰 오류와 폐단이 내재하는데, 그것은 사태해명(분석)의 분석이 분석된 것의 분석이 되어서, 분석 자체의 개념이 사람과 같은 주체와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거의 모든 실존 범주들이 주체처럼 기술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이곳 논문의 의도와 목표가 아니어서 생략한다¹⁸⁾.

III. 맺는 말

지금까지 나는 하이데거의 철학 사상이 신학을 철저히 사변화한 것임을 하이데거의 SuZ의 근간 줄거리와 용어들을 성서와 직접 대조하여 밝혔다. 엄밀히 고찰하면 사실 하이데거가 애초에 존재론을 기초짓겠다고 사람을 Dasein(바로여기있음)으로 지칭을 하고 이- 세상-안에-있음이라고 규정을 한 후에 또 다시 “실존”(Existenz)을 문제삼고 그 실존의 범주를 규명하고자 했을 때부터, 그는 키엘케골이 성서적 인간의 신앙 태도와 불신앙인의 삶을 해명하며 이 세상안에서 일상적으로 죄와 불안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 참된 실존(가능)에의 결단을 강조한 실존주의¹⁹⁾철학사상의

르트도 오직 신학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썼다. 참고. T.Kisiel, *The Genesis of Heidegger's Being and Time*, 150쪽 과 Anmerkung. 그리고 *Reading Heidegger, from the Star*, 176쪽. 우리는 하이데거의 이 언급으로부터 후썰이 하이데거가 다루는 현상학의 문제점과 모순을 꿰뚫어보고(-이는 SuZ의 실존론적 개념분석이라는 하이데거의 주장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철학하기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후썰이나 썬트르트가 하이데거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들이 하이데거를 오해했다고 해석하는 연구자들은 하이데거의 주장(이론)의 모순점을 명백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에 쓸 논문에서 그 모순점과 오류들을 밝힐 것이다.

18) 상세한 비판은 최성도, 학위논문, Uni. Halle Wittenberg, 177-184쪽. 참고

19) J.P.썬트르트가 하이데거 철학(전기의)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했을 때 <참고. Sartre, Jean Paul: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Les Editionals Nagel. Paris, 1970> 그이는 하이데거의 SuZ에서 개념분석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이를 넘어서 그 전체 내용을 바로 지적하였다고 추론된다.. 하이데거는 실

깊은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²⁰). 존재론의 재 건설자로 자처하는 하이데거가 키엘케골이 인간을 실존적·으로만 다루었고, '기독교적 문필가(교회자)'라고 그를 비하하여서 깎아내리지만²¹), 성서의 인간관을 통해 사람의 삶(존재)의 양식을 다루는 점에서 하이데거 자신도 키엘케골의 철학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이를 탈피하려고 한 노력이 딜타이의 삶의 철학을 흡수한 것이었다. 딜타이는 신학을 전공한 학자이지만 전통적인 독일 관념론에 맞서 "삶"을 "있음(존재)"으로 보았고, 역사속에서의 인간 삶의 실제 사실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서 인식론의 문제에 고착되어 한계에 갇혀있던(*aporia*) 의식철학의 시야를 새로이 존재물음의 지평으로 열어주었던 것이다.

하이데거는 SuZ를 쓰고 난 이후,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사람이란 존재자를 통한 존재물음이 막다른 길목에 갇힌 후²²),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이를 포기하고, 직접 존재자의 있음이란 사실 자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때 존재는 언어와 진리와 한 덩어리(공속)라는 관계에서 논구해지고,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는 혼연 일체의 신비적 묵상(명상)을 통해 존재의 사실에 눈을 뜨고 깨닫는 데로 들어가하고자 했다²³). 이 경우 동양의 선불교나 노자의 도(道)사상에 몰두하는 하이데거는 결국 중세 신비주의 사상에서처럼 자연의 현상(=있음)에서 창조주인 신(하느님)의 존재를 느끼며 '존재의 다가옴, 존재의 부름, 존재의 목자, 존재의 경이'와 같은 수도자의 깨달음의 말을 하는데, 이 "존재"라는 말의 자리에 기독교의 신

존론적 개념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SuZ이 실존주의 철학이 아니라고 하나, 그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그 스스로의 전회(Kehre)의 변명-"막다른 길목에 갇혔고, 다만 한번 시도해서 가본 길일 뿐, 더 이상 SuZ의 속편을 쓸 수가 없다".이 그 대답이다.

20) 하이데거가 SuZ을 준비하고 글쓰던 1920년대에 독일에서는 '키엘케골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참고 Rowolts Monographien, Soeren Kierkegaard, Peter P. Roende, 맨 끝 안쪽표지.(-1860년 이후로 키엘케골 저서들이 독일과 유럽 여러나라에서 번역되기 시작했다.)

21) 참고, SuZ, 235쪽 아래설명

22) J.W. Storck.(hrsg). 같은 책 54 쪽(18.IX.1932.편지).

23) 참고, M.Heidegger, Ga.60 301 쪽 이하.

(하느님)이란 말을 대치하면 그대로가 신학적 용어에 다름 아님을 알게 된다. 결국 하이데거에게서 전기나 후기나 기독교신학과 하느님 사상에 대한 숙고는 그의 전 사상에 긴밀히 날줄과 씨줄로 엮여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해석학”이란 것을 어떻게 습득했는가를 밝히는 대화에서 한 때 “성서의 말씀과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사고(思考)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 특별히 몰두했었다”²⁴⁾ 고 말했다. 이는 그이가 신학(성서)의 내용을 어떻게 사변(철학)화 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낼 것인지를 고민했다는 고백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 논문의 과제설정과 그 해명과정에서 증명한 것²⁵⁾을 그 자신이 확인해주는 것이다.

24) M.Heidegger, *US*, 91쪽

25) 이 논문을 하이데거의 “있음과 시간(Sein und Zeit)”을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알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이데거의 획기적 훌륭한 저서로 평가 받는 “있음과 시간”이 사실은 기독교 신학을 사변화한 것임을 나는 여기서 간결하나 명백하게 논증하여 세계 최초로 밝혔으며, “기독교 신학을 모르고 독일 관념론을 연구한다고 덤벼드는 무모함”<하이데거>보다도 더, 신학을 모르고 하이데거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며 공상이론과 패변을 설파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참고문헌

- 개역한글 성경전서, 대한 성서공회, 2003
- 김형효,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계, 서울, 2000
- Sein und Zeit, 1927, 12.Unveränderte Auflage. Max Niemeyer Verlg. Tübingen. 1972.
- Buber, Martin: Die Verwirklichung des Menschen, zur Anthropologie M.Heideggers .
in: Philosophia, vol.3.MCMXXX V11. Fas.1-4. 289-308.
- Dilthey, Wilhelm: Gesamt Schriften ,I, II, III, IV, V, VI, VII,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hrsg.) B. Groethuysen, Stuttgart. 1979.
- Figal, Günther: M.Heidegger. Phänomenologie der Freiheit, Athenäum. Frankfurt/M.1988.
- Gethmann, C. F.: Verstehen und Auslegung, Das Methodenproblem in der Philosophie M. Heidegger , Bourrierr, Bonn. 1974
- Gethmann, S., A.: Das Verhältnis von Philosophie und Theologie bei M.Heidegger, Freiburg, 1974
- _____ (hrsg.): Philosophie und Poesie ,Bd.2. Frommann- Holzboog, Stuttgart, 1988
- Von Herrmann, F.W.: Hermeneutische Phänomenologie des Dasein. Eine Erläuterung von 'Sein und Zeit" Bd.1 ,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M. 1987.
- Jüngel, E.: Gott entsprechendes Schweigen? Theologie in der Nachbarschaft des Denkens von M.
- Heideggers, In: M. Heidegger, Fragen an sein Werk, Ein Symposion, S.37-45, Stuttgart, 1977,
- _____ : Provozierendes Denken, In: Philosophisches Neue Hefte(23) für Philosophie. (hrsg.) Bubner, R. u.a. Vandenhoeck &

- Ruprecht, Göttingen, 1984
- Kisiel, T. : The Genesis of Heideggers Being and Time, univ. of California,USA, 1995
- _____ : Das Entstehung des Begriffsfeldes. Faktizität im Frühwerk. In: Diltheys Jahrbuch Bd.4
- _____ : Reading Heidegger From the start. (ed.) J.V.Buren.1994
- _____ : The missing Link in the early Heidegger. In: Hermeneutik Phenomenologie. (ed.) J. J.Kockelman .Wasington 1988
- _____ : War der frühe Heidegger tatsächlich ein christlicher Theologe? in: Philosophie und Poesie. (hrsg.) A. Gethmann- Siefert 1988
- Kierkegaard,Sören: G.W. 1. 4. 5/6.10. 11/12. 17. 20. 24/25. 26/29. 36. (Übers.)E. Hirsch u.a. Eugen Diederichs, Düsseldorf, 36Abteilungen, 1950-1974.
- Lehmann, Karl. : christliche Geschichteerfahrung und ontologische Frage beim Jungen Heidegger. in: Heidegger- Perspektiven zu Deutung (hrsg.) O. Pöggeler, Kifenhauer, Köln,196 Metaphysik, transzendental Philosophie und Phänomenologie in den ersten Schriften M. Heideggers. in : Philosophische Jahrbuch Bd.71.
- Löwith,Karl :Heidegger in dürftiger Zeit. J.B.Metzlersche . Stuttgart.1984.
- Lukacs,Georg: Heidegger , redivivus. in: Sinn und Form. 3 Heft .1949. 37-62.
- M. Heidegger und K. Jaspers Briefwechsel 1920-1963. Piper, 1990
- M.Heidegger und E. Blochmann Briefwechsel 1918-1969. Marbacher Schriften 1989
- Ott,Hugo: M.Heidegger Unterwegs zu sein Biographie. Campus. Frankfurt/M. 1988.
- Pöggeler,Otto: Der Denkweg M. Heideggers. G. Neske. Pfullingen.1963.
- Sartre,Jean Paul: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Les Editionals Nagel. Paris, 1970.

[Zeitschriften]:

Dilthey Jahrbuch, Bd. 4, 6, 8, 10: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86, 1989, 1992,1994

Heidegger Studie, Vol 6, 7, 8. München 1990, 1991, 1992

M.Heidegger Gesellschaft - Schriftenreihe, Bd.1, 5, Vittorio Klostermann,
F/M. 1989, 1998

Freiburger Diözesan- Archiv(FDA), Nr. 100, 104, Freiburg Erzbischofsamt,
1984, 1986

**Das Innere und das Aussere von
『Sein und Zeit』 M. Heideggers**

– die Philosophie als eine Spekulativisierung der Theologie –

Choi, SeongDo

Heidegger, der die Theologie nicht nur in seiner Familie und Umstaende, sondern auch in den ganzen Studien Zeiten lernte, geht weiter seine Herkunft auf die Spekularisierung bzw. Enttheologisierung. Das Ergebniss von diesem waere seine Haupt Werk "Sein und Zeit". In der Theologie(Heiligen Schriften) wurde das Sein Gottes von Jesus den Menschen in der Welt gesehen. Dabei wird in zwei Lebensweise des Menschens eingeteilt; Glaebiger (als Eigentlichkeit) und Unglaebiger(als Uneigentlichkeit). Diese Weise des Seins geht bei Heideggers Gedankengang pararell. Heidegger auch erlaeutert zuerst das Sein des Daseins in der Welt, um das Sein des Seiendes zu erklaren. Nach Heidegger hat das existierende Dasein zwei Modi in der Alltaeglichkeit: die Eigentlichkeit und die Uneigentlichkeit als "das Man". Und dann analysiert Heidegger die mannigfaltige Seinsweise des Uneigentlichkeit des Mans in der Alltaeglichkeit, wie in dem Heiligen Schriften die verschidene Lebensweise suendiger Menschen geschildert wird. Demnach enttheologisiert Heldegger die Suendenfallslehre, die Heilslehre und die Eschatologie in "Sein und Zeit". Ausserdem uebernahm er hermeneutische Methode "als-und Vor- Struktur" von kommentarischer Mehtode der Bibel. In diser Untersuchung bewaise der Verfasser diese Gruende im Vergleich mit "SuZ" und Theologie(Heiligen Schriften). Daraus ergibt sich, dass das Hauptwerk von Heidegger ein Philosophisches Denken ist, die von der Spekulation der Theologie entsteht.

Schlueselwoerter: Sein, Ontologie, spekulative Theologie, Das Man, Zeitlichkeit

최성도 e-mail : sansusi@naver.com